

“청년 위한 ‘나눔’... 왜 이렇게 어렵나요?”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 나누자
좋은 일자리 창출 취지 출발
열악한 지역경제 돌파구
대기업 국내 유턴 기회
노동계 등 전향적 자세를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공장 설립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사업이 난파 위기에 몰렸다. 사업의 양대축인 지역노동계의 불참 선언과 현대차의 투자 의향 철회 시사가 이어지면서 조정·조율을 맡은 광주시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인건비를 낮추고 일자리를 나눠 중국, 동남아, 남미 등으로 향하는 대기업의 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구상 역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광주일보는 3차례에 걸쳐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의 현황과 과제, 비전을 살펴본다.

<1> 초심으로 돌아가야

'광주형 일자리'는 열악한 광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고임금, 강성 노조 등으로 생산 공장을 중국, 인도, 동남아, 남미 등으로 이전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도 있었다. 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노사민정의 구도 속에서 임금을 낮추고, 주거·교육·의료 등 복지시스템을 지원하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지난 6월 1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

파란 가을하늘 분홍빛 핑크물리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지난 30일. 함평 주포면 한옥마을 주변 역새밸리존에 분홍빛 핑크물리가 만개했다. 휴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 설립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자동차 역시 민선 6기 노사민정의 합의를 믿고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2년만에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 현대차가 광주 완성차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자기자본 2800억원 가운데 19%(534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광주의 합작법인이 대기업 집단으로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21%(590억원)을 투자해 현대차의 자회사 형태가 아

닌 광주시와 현대차가 함께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 노조의 반대를 무마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지역밀착성을 높이는 의미다. 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등 현대차의 추가 투자도 예정돼 있었다.

지난 3월 7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내고, 6월 1일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은 현대차 노조의 강한 반발과 함께 민선 7기 들어 지역노동계의 이탈로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견상 소통 미흡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노동계가 현대차로부터 더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반대'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주당 근무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원 근무 여건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하지만 광주시나 현대차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대차에 위탁물량을 처리하는 공장이 수익을 내고, 미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은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현대차가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할 이유가 사라지고, 동시에 광주시의 투자금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설 합작법인이 5년 정도는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의 초임 연봉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합작법인을 어떻게 제 궤도에 올릴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고임금 일자리의 나눔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노동계, 현대차와 다시 협상태이블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혁신도시 조성 때 광주·전남·나주시 합의 '공동발전기금' 올해도 힘들 듯

광주시 "올해 내 조례 제정"
나주시 "내년부터나 가능"

나주시가 지방세 전액이 아닌 일부를 기금으로 내고, 이후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 지방세 전부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조례를 올해 내에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7일 시도 조례(안) 합의 시한이 지난 만큼 오는 11월 1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긴급 의원 발의로만 가능하다고 하며, 나주시와 전남도에 적극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0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발표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을 지켜 서둘러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 공동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사용한 지방세에 대한 입정차가 존재하고, 기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 만난 이시장과 김지사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을 발표한 후 공동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협회에 착수했다. 지난달 3일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으로 7일 조례(안) 검토를 전남도·나주시 등에 요청하고, 13일 공공기관장실무협의회를 열어 협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주시의 요청에 대해

나주시가 지방세 전액이 아닌 일부를 기금으로 내고, 이후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 지방세 전부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공동발전기금 조례를 올해 내에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7일 시도 조례(안) 합의 시한이 지난 만큼 오는 11월 1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긴급 의원 발의로만 가능하다고 하며, 나주시와 전남도에 적극적인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올해 내 조례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나주시가 시 재원으로 계속 투자한 금액이 1200억원이 넘는다고"며 "나주시는 당초 2023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중재를 계속해 내년부터 15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2017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9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의 절반 정도만 내년부터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공동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전남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본격화

687억 투입 2022년 완공
일부 반대 목소리도 거세

광주시가 서구와 광산구를 아우르는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본격화 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거공약인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빛가람·효령 노인타운 운영 성과분석 및 서부권역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냈다.

광주시는 6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빛가람·효령 노인타운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서부권역 노인복지시설 건립대상 지역의 여건과 구체적 건립대

상지 분석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새롭게 들어서는 서부권역 노인건강타운을 기존의 시설과 차별적이고 특화된 시설, 지역 친화적이고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9월 19일 '빛가람·효령 노인타운 운영 성과분석 및 서부권역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냈다.

총사업비를 효령노인복지타운 10년 사업비 기준으로 687억원(국비 30억원, 시비 657억원)으로 예상하며 2022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인건강타운을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등 건립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다시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 프랑크 혁명과 '라 마르세예즈' ▶18면
약속의 8회 또 뒤집었다
- KIA, 한화에 역전승 5위 굳히기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18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AUTUMN TRAVEL
CLEAN WANDO FESTIVAL 2018
일시 2018.10.19. (금) - 10.21. (일) 3일간
장소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주최·주관 |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